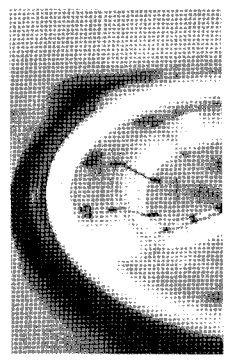




특집 [www.kcca.or.kr](http://www.kcca.or.kr)



## 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

수출 및 유통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골판지 상자 시장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2월 12일 현재 골판지상자 생산하는데 약 3~4일간의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원자재 부족이 수도권 및 지방을 망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골판지포장업체 관련 모든 주체는 가수요를 자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강구에 협력해야 하지만, 개별적 이해가 앞서 원만한 수습책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칠레 강진의 여파가 구리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 펄프 수입국의 펄프 공급 중단에 따른 국내 제지업계의 생산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문제점을 자료화 하였습니다. 제지업계, 특히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중첩되어 가격 급등의 아픔과 원지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매우 어수선합니다.

따라서 포장재 구입의 낭비요소를 제거한 적정포장 구입 질서가 정착되어 포장재가 없어서 제품이 포장되지 않는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사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황

가. 생산차질 속출골판지포장업체가 연초부터 골판지원지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골판지, 골판지상자 생산차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장 상황은 예년을 100으로 보면 현재는 7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판지포장업체 영업이사, MBN뉴스 인터뷰)

나. 골심지 부족난 심화

지역별 규모별 구분없이 대부분의 골판지포장 생산기업에서 3~4일간 생산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골판지원지 중 전량 국산폐지를 이용하는 골심지 부족이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 골판지원지 제한 공급

전례에 비취볼 때 동절기 및 비수기에 해당하는 연초의 경우 포장재 수요가 적어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나 금년의 경우 1월 중순부터 수급균형 붕괴조짐을 보이고 2월 현재 모든 회사로부터 골판지원지가 제한 공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원료부족의 원인 분석

가. 펄프 수입국 1위는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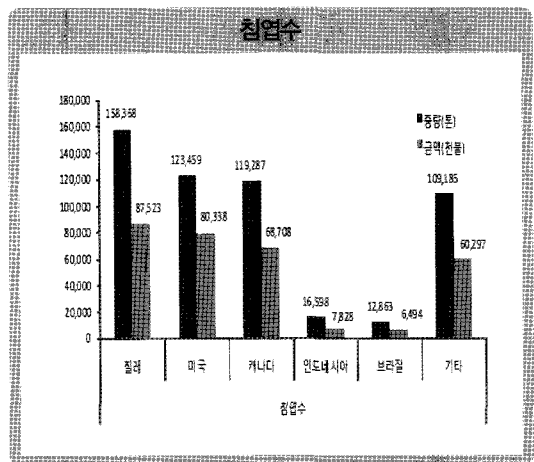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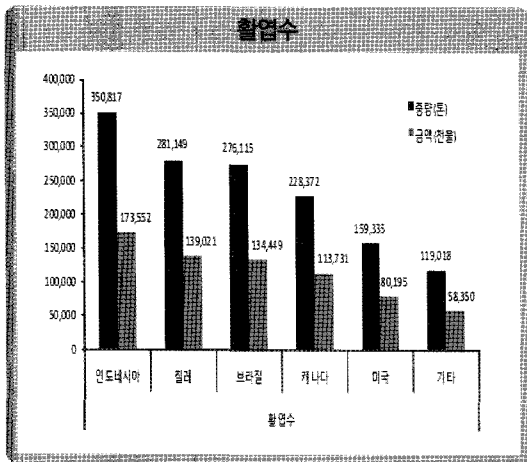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펄프를 44만톤을 수입하여 칠레가 펄프 공급국가 1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펄프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칠레가 439천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2.4%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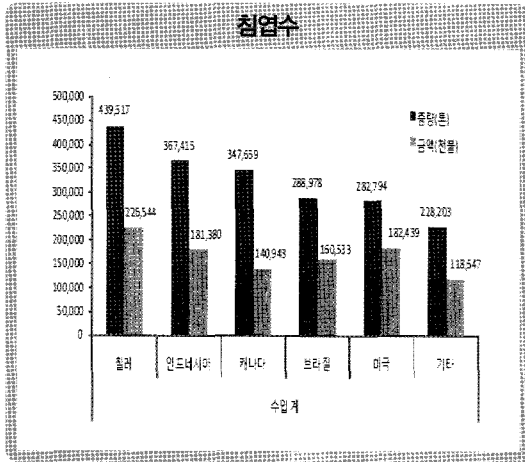
나. 칠레 강진으로 펄프 공급 차질 불가피

칠레 강진의 여파로 펄프 및 제지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재가동은 적어도 3~4개월 지난 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칠레 펄프공장인 연간 220만톤 규모의 CMPC공장은 3개 공장 중 1개 공장은 피해를 입었고, 2개 공장은 진앙지에서 약간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는 경미하나 도로상태가 문제되어 3개 공장 모두가 조업 중단된 상태이며, 이 공장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양은 27~30만톤 규모이다. 아울러 300만톤 규모인 아라코는 진앙지에 인접해있어 5개 공장 중 2개 공장이 파괴되어 당분간 생산 활동이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 자료 참고**

구분	순위	국가	수출 실적	수입 실적
활엽수	1	인도네시아	350,817	173,552
	2	칠레	281,149	139,021
	3	브라질	276,115	134,449
	4	캐나다	228,372	113,731
	5	미국	159,335	80,195
		기타	119,018	58,350
		소계	1,414,806	699,298
침엽수	1	칠레	158,368	87,523
	2	미국	123,459	80,338
	3	캐나다	119,287	68,708
	4	인도네시아	16,598	7,828
	5	브라질	12,863	6,494
		기타	109,185	60,297
		소계	539,760	311,188
수입 계	1	칠레	439,517	226,544
	2	인도네시아	367,415	181,380
	3	캐나다	347,659	140,943
	4	브라질	288,978	160,533
	5	미국	282,794	182,439
		기타	228,203	118,647
		소계	1,954,566	1,010,486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아라코로부터 수입되는 연간 17만톤 규모를 포함하여 최소 40만톤 이상의 펄프 수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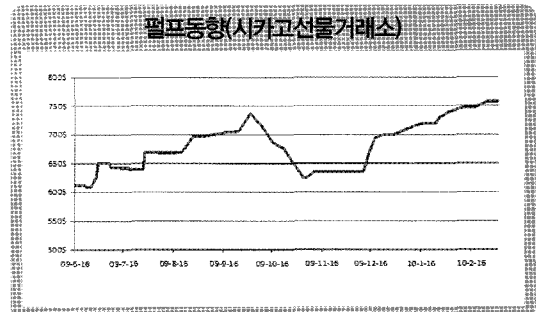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펄프공장 폐쇄분위기와 맞물려 금년 5, 6월까지의 펄프공급량은 극히 미미하여



국제 제지업계에 상당한 충격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 펄프 및 골판지원지 가격 지속적인 강세 펄프가격이 목재 등 원료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이유로 주요국의 펄프공장이 가동을 멈춘 이후 펄프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72불 수준이던 펄프가격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가격기준으로 1월 평균 723불, 2월 3주 평균 748불, 3월 3일 757불을 기록하며 상당한 상승폭을 예고하고 있는 듯함. 아울러 이와 연결되어 있는 골판지원지 가격도 사상 최고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16일 예고된 골심지 가격은 42만원/톤, K원지 41만원/톤이었으나 이후 47.8만원으로 통지된 이후 2월 23일 골심지 가격은 46만원, K원지 가격은 45만원으로 정리되어 최대 29.6%의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구분	2009.9	2010. 2. 16	2010. 2. 18	2010.2.23	인상율(%)
S120	355	420	480	460	29.6
K180	365	410	470	450	23.3
SK180	455	520	560	540	18.7
KLB175	600	650	650	650	8.3

주 1. 단위는 천원/톤 기준이며, 부가세 별도, 현금결제조건  
 2.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자료

라. 골판지원지의 가격 상승요인

- 연말연시 폭설과 강추위로 회수율저하  
 지난 연말연시 폭설과 강추위는 폐지수거를 전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동을 제한하

여 폐지회수율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폐지중간 수집상에 따르면 폐지로 수집되는 양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줄었들었다.

- 폐지가격 인상기대로 출하 지연 추정  
 국산폐지가격이 지난 연초를 기점으로 1주일 간격으로 120원/kg, 130원/kg, 160원/kg, 180원/kg 수준까지 이르면서 향후 추가 인상을 기대하며 출하 지연 및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골판지원지 공장으로 폐지 재고율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상기의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해 원료자원인 골판지원지, 폐지(OCC)의 약 20만톤 해외유출 초과로 골판지원지 생산 원료 부족 문제와 맞물려 농산물포장재 본격 출하기를 맞는 4월 들어서는 골심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에도 일부 골판지상자 수요업체는 상자 조달이 원활치 못하여 정부 관련 담당자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량 축소 및 폐지수입량이 획기적으로 늘기 전까지 폐지 부족으로 인해 골판지원지 공급이 제한적이고, 궁극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적기 공급(안정

적 공급)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3~4월 농산물포장재 수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급 부족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분	수출			수입			유출 조과량
	골판지원지	OCC	소계	골판지원지	OCC	소계	
2006	380,209	1,299	381,508	147,719	262,217	237,321	144,187
2007	350,482	100,482	450,964	169,420	281,095	450,515	-449
2008	305,181	147,918	453,099	134,317	302,330	436,647	16,452
2009	352,661	163,122	515,783	78,770	240,673	319,443	196,340

### 3.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제언

#### 가. 골판지원지의 지중 색상단순화 강력 추진

과거 라이너원지의 표면 얼룩 및 반점 등 조악한 품질을 커버하기 위하여 다갈색의 원지를 황색 또는 황색라이너를 생산하여 공급하면서 포장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일부 식료품포장과 감귤, 단감포장용도로 황 황색라이너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문생산특성을 갖는 골판지포장기업은 황 황색라이너를 상시재고로 보유하여야 판매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재고를 안고 있게 되나, 황황색라이너를 도태시키고 다갈색(원색)으로 통일한다면 황 황색라이너 재고량만큼의 원료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 골심지를 중심으로 골판지원지 수출 자제 요청

다. 폐지의 수출 통제 및 긴급 수입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조달 조건 확보

라. 각 유통단계별 가수요 심리 자제요청으로 비정상적 상황 통제 필요



골판지 포장업계 조업 중단 속출

2010년 02월 16일 13:45

한국언론의 새대교체 ◆ 브레이크뉴스 ◆



골판지업계, 원료부족 '울상'..가격인상 초읽기  
원지 해외수출↑ 폐지 수입량↓...조업중단 등 국내 생산 차질

특보나 기자 cream53@nate.com



2010-02-17 08:31

아세아제지·차이나허오란 등 골판지 원료부족 수혜 예상



골판지포장업계, 원자재 부족으로 조업중단 '속출'

2010년 02월 16일 (목) 16:47:50

온라인 기자 room tvshin@naver.com



골판지업계, 원료난으로 조업중단까지...생산차질 심각



2010년 02월 11일 수요일

골판지업계, 원료부족으로 생산차질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 매일경제

mk.co.kr  
2010년 2월17일 수요일  
안내: (02)2000-2114 제1369호 17면

농산물·전자제품 상자 등을 생산하는 골판지 포장업체들이 원료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골판지 포장지 생산업체에서 3~4일간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골판지 원지 전량을 국산 폐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국내 골판지 원지 원료자원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폐지 수입량은 줄고 폐지와 골심지 수출량이 크게 늘어 지난해에만 19만3000여 t의 원료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여기에 세계적 펄프회사인 엔소유로칸 펄프와 원지 공장이 지난달 31일 영구 폐쇄하면서 골판지 원지 수입마저 꼭 막혀 원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골판지 원지 공장으로서 폐지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원지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산폐지 가격이 올초부터 1주일 간격으로 kg당 120원에서 현재 160원까지 오르면서 폐지업자가 향후 폐지가격의 추가 인상을 기대해 출하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는 3~4월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업체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우 조합 전무는 "연말 연초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포장재 수요가 적었지만 예년에도 3~4월에는 농산물 상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렇게 되면 원지가 없어 포장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 같은 원지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골판지 원지의 지중 색상 단 순화 추진 등을 주장했다.

[홍중성 기자]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 한국경제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hankyung.com

호 14611호 47면 | 대표전화 021380-4114

## 골판지업계, 원료 못구해 생산 차질

입력시각 : 2010-02-16 21:40

포장박스 원재료인 골판지 생산 및 박스 제조업체들의 조업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수도권 및 지방의 대부분 업체가 원재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판지 원지로 박스를 만드는 포장박스업체들도 원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A,S 등 골판지 원지 업체는 통상 매월 2일 정도 공장을 세우지만 올 들어서는 월 5~6일씩 가동을 멈추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설연휴에도 공장을 돌렸다"며 "올해는 설연휴를 포함해 앞뒤로 하루씩 더 공장을 쉬었는데도 재고가 여전히 부족해 언제 재가동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지업체 관계자는 "그간 평균 15일 정도의 재고량을 유지해왔지만 요즘은 2일치도 안 된다"며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1분기엔 90% 선이었으나 올 들어서 73% 선에 머물고 있어 이익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폐지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폐지 및 골판지 원지의 수출 증가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골판지 원지의 수출량은 2008년 30만5000여t에서 지난해 35만2600여t으로 16% 늘었다. 같은 기간 폐지 수출은 14만7900t에서 16만3100t으로 약 10% 증가했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폐지 가격은 종초 톤당 12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 160원까지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골판지 원지업체들은 골심지는 1당 35만5000원에서 42만원으로,라이너지는 1당 45만5000원에서 51만원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 포장박스업체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진우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폐지 부족현상이 결국 포장박스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3~4월 농산물포장재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는 박스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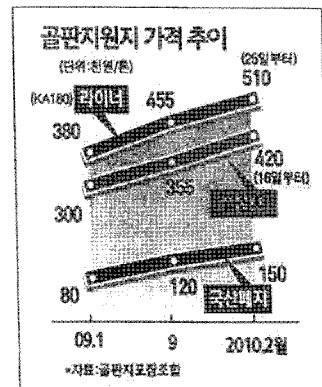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 서울경제

THE SEOUL ECONOMIC DAILY

제13304호 35판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골판지 업계가 원자재 부족으로 연초부터 심각한 생산 차질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는 원자재 공급난으로 골판지 상자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면 지난 94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골판지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16일 "골판지 원지 공급부족으로 골판지상자 생산이 3~4일씩 지연되는 등 심각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패지가격 상승으로 골심지와 라이너 가격이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인상돼 골판지 및 골판지 가격 연동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골판지를 구성하는 골심지(가운데 물결모양의 골 부분) 가격은 작년 9월 통당 35만5,000원에서 이날부터 사상 최고가인 42만원으로 급등했으며, 라이너(표면의 반듯하고 뽀뽀한 판지) 가격 역시 작년 9월 45만5,000원에서 오는 25일부터 51만원으로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처럼 골판지원지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원료인 폐지 부족 때문이다. 조합의 김진우 전무는 "지난 2년간 국산 폐지의 해외 수출초과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해 원화 약세로 폐지 수입량은 줄어든 반면 폐지와 골심지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19만3,000톤의 원료 부족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폐지 수출이 미미하던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입은 29.1% 줄어든 반면 수출은 14.4% 늘어나 원료 공급난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지가격은 올 1월 초 kg당 120원에서 현재 160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등, 골판지원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연말연시 폭설에 따른 폐지 회수를 저하와 지난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각 유통단체마다 가 수요까지 겹쳐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다. 조합은 "폐지업계가 출하를 유보하고 있어 골판지 원지공장으로 폐지유입이 급감하고 있고, 골판지 업계도 원지가격 상승 추세 때문에 재고를 확보해두려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요인을 때문에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1월 중순부터 수급균형이 무너져 2월 들어서는 모든 회사로부터 골판지 원지가 제한공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골판지포장업계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내달 이후다. 김 전무는 "그러나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지만 3~4월부터는 골심지를 두 겹으로 대야 하는 농산물 포장재 수요가 급증한다"며 "내달 이후 본격적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